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지지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주류 언론은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지만 팔레스타인 지지 운동은 순식간에 세계적 운동으로 성장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나라 전체를 휩쓸고 있다. 정부가 시위 참가를 공식 호소한 나라도 몇몇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지원해 온 서방에 친화적인 아랍 정권들은 자신들을 공공연히 비판하는 시위대를 공격하고 강제 해산시키기도 했다.

서방의 친이스라엘 정부들도 시위를 공격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등 운동의 성장을 가로막으려 하지만, 사람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를 공식적으로 금지해 왔는데, 지난 주말 처음 허가된 파리의 집회에는 3만여 명이 참가했다. 이에 앞서 리옹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독일 정부는 ‘유대인 혐오’를 핑계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금지하고 곳곳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을 공격했다. 그럼에도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등지에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영국 내무장관 수엘라 브래버먼은 팔레스타인 깃발을 ‘혐오 표현’으로 분류해 처벌하라고 경찰에 지시했지만, 지난 주말 런던에서 30만 명이 모인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는 이런 시도를 무력화했다.

미국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스라엘 국가에 반대하는 유대인 단체 등이 워싱턴의 의회 부속 건물을 점거한 데 이어 지난 주말 시카고에서는 3만여 명이, 뉴욕 브루클린에서는 1만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서방은 하마스와 나머지 팔레스타인인들을 분리시키려 하지만,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의 라말라에서는 시위대 수백 명이 하마스의 저항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압바스 수반이 이끄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

런 항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경찰을 보내 시위대를 공격했다. 나블루스, 투바스, 제닌에서도 비슷한 충돌이 벌어졌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도 수만 명이 시위를 벌였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등 아시아에서도 아랍인과 비아랍인이 함께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인도, 파키스탄, 브라질, 남아공 등 세계 모든 대륙의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심지어 유명 휴양지로 알려진 몰디브의 수도 말레에서도 수천 명이 거리로 나섰다. 몰디브의 총 인구는 겨우 50만 명이 조금 넘는다.

이스라엘에 대한 반발이 어찌나 광범한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조차 하마스의 공격이 “진공상태에

서 발생한 일은 아니”라며 이스라엘 측의 책임도 물었다. 그는 “팔레스타인인들은 56년 동안 숨 막히는 점령에 시달려 왔다”고 덧붙였다.

이 분노의 폭발은 이스라엘에 대한 혐오뿐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국 지배자들에 대해 느끼는 분노의 깊이를 보여 준다.

사람들은 한편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지배계급이 있고 다른 한편에 노동계급과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을 포함해 수백만 명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연대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 분노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제국주의, 그리고 친제국주의 정책을 벌이는 각국 지배자들을 향한 더 강력한 항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 연대〉정규호에는

16면 전면에 중동 소식과 분석, 팔레스타인 현지인의 목소리,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내 쟁점이 실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체계적 거짓말은 폭력으로 얼룩진 탄생 때부터 시작됐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벌인 잔혹 행위를 은폐한 거짓말로 점철돼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할 때마다 이를 정당화하는 거짓말을 재빠르게 내뱉어 왔다. 이스라엘의 상투적인 첫 대응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면, 그다음 단계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한다. 2022년 5월 이스라엘의 한 저격수가 저널리스트 시린 아부 아클레를 사살했다.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 예년을 습격하던 중 벌인 일이었다.

총탄은 그녀의 헬멧 아래, 그리고 그녀가 기자임을 밝히는 방탄조끼 위를 맞혔다. 고도의 조준 사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총리 나프탈리 베네트는 팔레스타인 측 오발로 그녀가 사망했다고 몰아가려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은 재빠르게 사진을 배포했는데 한 팔레스타인 투사가 어떤 군인을 사살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었다. 마치 그가 아부 아클레를 쏘기라도 한 것인 양 말이다.

아부 아클레 살해로 광범한 분노가 일자 이스라엘은 후퇴해야 했다. 2022년 9월 이스라엘 군은 아부 아클레가 자신들의 총격에 “불운하게 맞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해야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범죄로 보거나 수사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기자 살해는, 이스라엘이 사람을 대거 죽이고도 이를 은폐하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만은 아니다. 2006년 6월 이스라엘 측은 가자지구 해안에서 민간인 7명을 폭사시켰는데 그 중 셋은 어린이였다. 이스라엘 군은 재빨리 위원회를 꾸려서 해안 참사를 조사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하기가 무섭게 모든 책임에서 자신을 면제시켰다.

1982년 레바논에서도 같은 일이 벌



이스라엘은 2022년 5월 저널리스트 시린 아부 아클레를 사살하고도 팔레스타인 측의 오발 사고라고 거짓말을 한 바 있다

어진 바 있다. 샤틸라 난민 캠프는 수도 베이루트 인근 사브라 지역 바로 옆에 있었다. 1982년 9월 16~18일에 레바논 극우 병력은 이스라엘 군과 함께 팔레스타인 난민과 레바논 민간인 2000명을 살해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그 살인 행위를 용납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엔 진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그에 가담한 살인자나 당국자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후 이스라엘 측 조사 결과는 살육의 직접적 책임이 이스라엘의 동맹이었던 레바논 민병대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조사조차 이스라엘 국방장관 아리엘 샤론에게는 “유혈 학살과 보복이 자행될 위험을 무시한 개인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샤론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2001년에 총리로 선출됐다.

이스라엘의 솔한 거짓말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커다란 거짓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스라엘이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땅 위에 건국됐다는 허구 말이다.

진실은 1948년의 “나크바”(‘대재앙’이라는 뜻) 동안 폭력과 잔혹 행위로 팔레스타인인 100만 명을 겁박해 쫓아냈다는 것이다.

이런 진실은 은폐돼야만 했다. 2009년 이스라엘 교육부는 ‘나크바’라는 단어를 팔레스타인 어린이용 교과서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2011년에 이스라엘 의회는 어떤 기관도 나크바를 기리는 행사를 일체 할 수 없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 법에서는 나크바를 기리는 모든 행사를 인종차별, 폭력, 테러 조장 행위와 같다고 간주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나크바의 진실을 드러내려 하는 것을 극단적인 위협이라고 여긴다.

1948년에서 배울 교훈은 거짓말도 반복되고 충분히 강력한 지원을 받으면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거짓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아리엘 칼너는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같은 리쿠드당 소속 의원인데 하마스 공격 이후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올렸다. “지금의 목표는 하나다. 바로 나크바!”

“새 나크바는 1948년 나크바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가 돼야 한다. 가자지구를 상대로 한 나크바, 그리고 누구든 가세하려는 자들을 상대로 한 나크바!”

그리고 이 제2의 나크바가, 첫째 나크바와 마찬가지로 온갖 거짓말로 뒤덮여 있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orkersolidarity.org/join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
what-we-stand-for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